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박 준 성

나사렛대학교
심리재활학과

최 영 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학교생활 적응 관련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갈등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3~6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내용을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조건으로 세 차원 즉,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사회적 차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개인, 가정, 다문화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학교생활적응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민족 정체성과 다문화 인식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초등학생, 학교생활적응, 현상학적 연구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 tjung@cau.ac.kr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의 수와 함께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 100명 중, 1명이 다문화 학생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57,806명 중, 초등학생은 48,297명이었다. 이는 2009년에 26,015명에 비해 상당한 상승률이다(국제신문, 2015. 3. 17. 기사). 이와 함께 아직까지 미취학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율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초·중·고에 재학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1%가 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률은 일반학생들보다 높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은 심각한 수준이다(국제신문, 2015. 3. 17. 기사). 이러한 문제는 비단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지 다문화와 관련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학교 및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그들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내에 정착한 이주여성인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김아영, 김수인, 2011; 이지연, 김문희, 한수진, 장진이, 2013). 이주여성의 여러 전반적인 생활 관련 어려움은 그들의 문화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가정불화나 자녀에게에 피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옥선, 2014; 오

옥선, 김성봉, 2012; 이석형, 2008; 정선척, 강기정, 2008).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은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심각한 부적응을 야기한다(고유미, 2009; 김아영, 김수인, 2011; 행정안전부, 2008). 왜냐하면 부모의 적응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all, 2010). 이때 부모의 교육과 경제수준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여할 수 있으며, 이주해 온 주류사회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응을 잘 한 부모는 자녀인 아동의 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부적응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여러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으로 관련된다(최성보, 2011). 이러한 태도는 미래에 직장생활 및 우리사회 일상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고 학교에서 여러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박준성, 안혜정, 정태연, 2013; 제갈중기, 2007; 최성보, 2011). 가령, 다문화와 관련하여 일부 교사와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 즉, ‘끼리끼리’와 같은 내집단 편향으로 인해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은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설동훈 등, 2005; 유민봉, 심형인, 2012). 그들은 학업수행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언어적인 한계와 함께 부모의 심리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었다. 이러한 저조한 학업수행은 자기개념과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이나

민족 정체성 확립이나 학교생활적응 등과 같은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한다(문은식, 2002; 민하영, 권기남, 2004; 박준성 등, 2013; 심상민, 2011; 은선경, 2010; Hall, 2010). 이렇듯 학교교육에서 민족에 따른 편향은 건강한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을 잘하기 어렵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은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발달과정에 중요한 과업이다(곽한영, 2010). 왜냐하면 학교교육의 첫 시작이 초등학교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생활적응에는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학업수행, 학교규칙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다(이태희, 2006; 홍성훈, 김희수, 2005; 정옥분, 2014; Berk, 2010; Santrok, 2011). 이러한 발달은 아동기의 초등학교생활을 거쳐 중·고등학교 즉, 청소년기까지 계속된다. 기존 연구결과들을 보면, 초등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낮은 스트레스, 긍정적인 자존감과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또래관계 등의 변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성희, 임성택, 2010; 김성희, 정옥분, 2011; 박준성 등, 2013; 박현선, 2003; 이진숙, 2004; 최성보, 2011; LaFreniere & Sroufe, 1985).

학교생활적응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존감과 원만한 부모자녀관계 등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존감은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으며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써 기존 연구결과들을 보면, 높은 자존감의 사람일수록 불안이나 고통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견디고

스트레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이었다(김아영, 김수인, 2011; 박우람, 홍상황, 2014; Alloy & Abramson, 1988; Brown & Mankowski, 1993; Resenberg, 1965). 원만한 부모자녀관계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이다(고성희, 임성택, 2010; 설경옥, 정승원, 2013; 오세진 외, 2010; 유신복, 손원숙, 2013; 임수진, 안진홍, 2012). 이것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결과이다(고유미, 2009; 전성희, 2010; 최성보, 2011). 즉,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그들은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가 중요하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발달에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가 긍정적일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 학교생활적응이 긍정적일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할 때,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이었다(김동현, 이규미, 2012; 이지연, 김문희, 한수진, 장진, 2013; 홍성문, 김희수, 2005). 교사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도 중요하다. 발달과정에서 아동은 성장해감에 따라서 대인관계는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가족관계에서 또래관계로 확장한다(정옥분, 2014; Berk, 2010; Santrock, 2011). 이들은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정과 같은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경험하였다(Bukowski & Hoza, 1989; Berk, 2010). 기존 연구결과들을 보면,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안정된 학교생활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 및 사회·정서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성희, 정옥분, 2011; 이진숙, 2004; Berk, 2010). 더 나아가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분석적 문제해결능력과 함께 문화적 이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공의 이득에 대한 관심 갈등 해결의 신중성을 가져오기도 하였다(Hall, 2010; Hurtado, 2005; Sommers, 2006). 이와 반대로 일반가정이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로 인해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거나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학교생활 적응을 잘못하면 학교생활을 중도 포기하고 집에서 고립되는 경우도 있었다(김혜은, 2012; 이경님, 2008; 임지현, 2009; 제갈중기, 2007). 그러므로 원만한 교사관계와 또래관계는 편견 없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의 다문화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새로운 인식과 정체성(identity)이 필요하다(김태준, 2004; 박준성, 허성호, 전미연, 정태연, 2015; 양계민, 2015; Hall, 2010; Tropp & Pettigrew, 2005).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다문화통합교육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연구에 대해 질적인 방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적응과 관련한 요인이나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생활적응에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배경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초등학교를 선

정한 배경은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고, 공교육에서도 초등교육이 선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분석 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을 토대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세 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이는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적응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자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이는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 제공해야 할 여러 자원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적응관련 개선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정체성 및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교육 이후 성인으로서 발달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및 다문화 인식과 관련하여 발달적 이해 및 문화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요인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정체성 및 인식을 알아본다.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였고, 7번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외국인이었다. 참여자의 모집은 눈덩이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거나 학교에서 방문하여 소개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제한을 하였다. 너무 어린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은 언어적으로 표현의 한계로 인해서 제한하였다. 다음과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을 표 1과 같

다. 이들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여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특수학교나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자료의 수집은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해 일대일 심층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소요시간은 약 40분에서 1시간이었으며, 사전 교육을 통해 면접 목적과 내용을 숙지한 연구자와 함께 심리학 전공 조사원 2~3인이 1조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접 질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반구조화질문지로서 크게 첫째, 개인생활과 학교생활 전반에 질문하였다. 둘째, 관계적

표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구학적 정보

구분	학년	연령	성별	지역	어머니 고향	가족관계	비고
1	3학년	만9세	남	평택	필리핀	어머니	
2	3학년	만9세	여	안산	중국	어머니, 아버지	
3	3학년	만9세	여	평택	필리핀	어머니, 아버지, 동생 2명	
4	3학년	만9세	여	평택	멕시코	어머니, 아버지, 동생	
5	4학년	만10세	남	인천	일본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	
6	4학년	만10세	여	서울	필리핀	어머니, 아버지, 동생	
7	4학년	만10세	여	평택	필리핀	어머니, 아버지	부모 모두 필리핀
8	4학년	만10세	여	인천	일본	어머니, 아버지, 동생	
9	5학년	만11세	남	인천	조선족	어머니, 아버지, 누나	
10	5학년	만11세	남	안성	필리핀	어머니, 아버지, 누나	
11	6학년	만12세	남	서울	중국	어머니, 아버지	
12	6학년	만12세	남	용인	중국	어머니, 아버지, 동생	
13	6학년	만12세	여	안산	러시아	어머니, 아버지	
14	6학년	만12세	여	안산	중국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2명	

측면에서 교사관계와 또래관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정체성 및 다문화 인식에 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면접 내용은 사전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면담 후 녹음 내용을 필사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질적 분석 중, 현상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면접을 통해 얻은 질적 자료를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Giorgi(1985)는 현상학적 분석에서 기술(description)이 이론적 설명과는 별개로 생생한 실제 경험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데 연구의 핵심을 두어 면접에서 나타난 축어록을 위주로 하되 분석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학술적으로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에서는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연구대상자들과 동일시하여 전반적인 느낌을 얻을 때까지 필사된 모든 축어록을 여러 차례 읽는 과정을 거쳤다. 둘

째, 개별 축어록으로부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보고하는 생생한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의미한 어구 혹은 문장을 의미 단위(meaning unit)로 도출하였다. 셋째, 유의미한 어구나 문장들을 학문적인 용어로 변환하는 절차를 거쳤다. 넷째,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 단위들은 상위 구성요소로 유목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요소들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의 요인,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과제, 적응을 위한 정체성 및 다문화 인식 순서로 분류한 다음, 각각에 적합한 축어록의 일부 및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결과에 제시하였다.

결 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의 요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요인에 대한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게 있어 학교생활적응의 요인은 그림 1과 같이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세 차원에서 학교생활적응의 요인 살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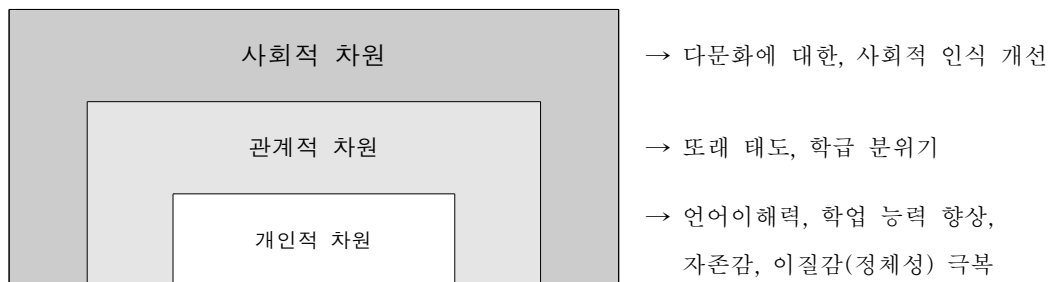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적응 차원

개인적 차원

우선으로 개인의 적응적 차원에 핵심 요인은 언어 이해력이 중요하였다. 한국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학교 생활적응을 잘 하고 있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에게 언어 이해와 활용의 문제가 일상적 의사소통과 학업 그리고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말하기와 읽기나 받아쓰기와 같은 언어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학교생활적응에 자신감이 붙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발음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다문화 출신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양육 관계에서 비롯되는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아동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야겠죠. 한국어 능력이라고 봐요. (사례 2번)

우리나라 말을 잘 구사하기 못하면 학습에도 영향이 있지만 그 이전에 학급이나 학교에서 어울리는 게 일단 튀잖아요? 언어적인 면이 능숙하다면 그 이외의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어적인 면이 해결이 되면 심리적으로 약한-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반 친구 중에 00이가 언어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사례 13번)

한국말 못하는 거 같아요. 발음도 이상해요. 말할 때 많이 어렵고 쓰는 것도 어려워요. 선생님이 알림장 불러 줄 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지만 어떻게 쓰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전 다른 친구들 보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례 8번)

한국어 할 때 조금 어려운 점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례 1번)

한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일반 초등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학업 면에서 부진한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중, 친한 친구들의 도움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 학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 학교에서 심한 학업부진이 있는 경우, 또래관계에서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공부와 적응 중에 더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저는 공부요. 작년엔 몰랐는데, 아이들이 자기위주로 생각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렇게 봐요. 어른들은 그런 걸 걸지로 표현은 안하지만 아이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옆 반 00을 보면 공부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잘 하면 친구들 하고도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사례 7번)

수업은 비슷해요. 근데 국어는 잘 못해요.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울 때는 어려웠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모

르는 것은 선생님한테 거의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수업시간에 발표도 잘 할 수 있어요. (사례 2)

공부하면서 어려운 것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해요. 친구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00이가 알려주기도 해요. (사례 4번)

언어와 관련해서 자존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는 자존감이나 정체성 등과 같은 문제가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부정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사춘기 시기에 자존감이나 정체성 등이 부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함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였다.

자존감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어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어요. (사례 6번)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문제지 아직은 괜찮아요. 어리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춘기 때 어떻게 살아갈까 솔직히 그거는 좀 걱정이 되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나라도 인정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면 사춘기 때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례 13번)

관계적 차원: 학교와 학급 및 또래 분위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

한 요인을 알아본 결과 관계적 차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은 또래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관계적인 측면에서 학급의 분위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위해 다문화 인식과 관련한 학급 및 또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해결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친한 친구들과는 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고하였는데, 이 또한 학급 분위기와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지지자가 되어야 하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반 애들이 어떻게 대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생김새 때문에라도 놀림 받는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가장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애들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학교가기 싫어요, 가면 생김새 다르다고 놀려요.’ 라는 그런 기사를 몇 번 봤었는데, 그게 제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례 6번)

저희 반에 장애학생이 한명 있는데 그 학생을 아이들에게 소개할 때에도 ‘조금 다를 뿐이다. 몸이 조금 아파서 조금 다를 뿐이지 전혀 다른 게 없다. 하고 싶은 건 똑같지만 그중에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을 뿐이다. 그런 걸 너희가 도와주면 된다. 그리고 도와줄 때 할 수 있는 것은 혼자하게 놔둬라. 할 수 없는 것을 그 때만 조금씩 도와주어라’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례 9번)

안 친한 애들은 짜증나게 하는 애들이요. 어떤 면에서 짜증나게 하는지는 잘 모

르겠어요. 아. 그냥 신경을 건드려요. 자꾸 신경에 거슬려요. (사례 8번)

‘우리 함께’라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사례 5번)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일반학생들과의 갈등이나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13번 참가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지내는 것, 저학년 때부터 다른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봐오는 것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평가를 하였다. 학급의 친구들이 당사자가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또래관계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스스로의 사교성 등 성격 특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나, 중학교 등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여 다문화와 관련한 불안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편견 그런 게 없어요.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봤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겠지만 그런데 계속 보니까 또 편견이 없어졌어요. 애네가 중고등학교 가면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보고 있고 조금이라도 놀리면 혼내니까요. (사례 13번)

아이들이 다문화아동인지를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냐면, 지역적인 특성으로 학교 앞에 아파트가 2개가 있는데, 0000아파트와 00아파트예요. 대체로 다문화아동들은

00동 본동에 살아요. 근데 00는 0000아파트에 사니깐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사례 14번)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어울리는 시간이 관계형성 간의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깝고 친밀한 친구들과는 방과 후 시간에도 같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그냥 놀아요. 놀다가 친해지기도 해요. 컴퓨터 게임하고 놀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요. (사례 11번)

음...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나뉘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랑은 지금도 다 친해요. 처음에는 두 명 친구랑, 네 명 친구가 있었는데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같이 학교 끝나고 많이 놀아서 재미있어요. (사례 12번)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같이 놀아요. 숙제도 하고 컴퓨터도 같이 해요. 00은 가까운 곳에 살아서 자주 만나요. (사례 3번)

친구는 엄마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놀 사람이 없으면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말해 주거든요.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같이 놀고, 공부시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서로 알려주고요. 만약 친구가 없다면 혼자 외로울 것 같아요. (사례 1번).

사회적 차원: 사회 인식 개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다문화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전반적

인 인식 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또래관계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편견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사회학습 또한 편견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아동이 없던 교실에서 자랐던 아이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있는 교실에서 자란 아이하고 누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나?’라고 물으면 당연히 잘 경험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피해 볼까봐 막아버려서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범죄자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같이 어울려서 자라나는 상황에서 미리 짐작해서 피해볼 걸 예상해서 차단시켜버리면 애들한테도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고, 이미 부모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럼 나중에 그 애들이 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례 14번)

학교 친구들을 보면, 사교적이고 활발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내다보면 따돌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9번 사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과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과제를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정 초

등학생에게 있어 학교생활적응의 향상 과제는 개인별 맞춤형 생활지도 및 상담, 가정 연계 교육 및 지도 그리고 다문화 인식 관련 교육으로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과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개인별 맞춤형의 생활지도 및 상담

같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부족한 면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지도 및 상담이 개개인에게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수업시간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지도 및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 관련 지원 센터가 초등학생 거주 지역에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적절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 차이가 있기도 하고, 언어적 장벽이 있는 애들도 있고, 심리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다 각각에 맞게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장 좋겠어요. 그거를 상담이나 교육이나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례 11번)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사람마다 겪은 어려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주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만 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조금씩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지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전 보거든요. (사례 9번)

동네에 있는 다문화 지원 센터를 다니다 보니 학교에서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읽기수업이나 받아쓰기가 어려워져 힘들기도 해요. (사례 2번)

가정 연계 교육 및 지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과제를 묻는 과정에서 가정 연계 및 부모 교육에 대한 언급을 확인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 관련 정책이 상당히 많지만 지원의 상당수가 학교에 집중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정으로부터의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하였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다문화와 관련하여 부모의 우리사회 적응과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부모의 수행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응을 잘 한 부모는 자녀인 아동의 생활적응에 긍정적이었다.

지원은 많아요. 학교 쪽 지원은 많은데, 가정에서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식교육과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떤 다문화가정의 집에 가보면 사람 사는 집인가 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생활환경이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거나 숙제를 하고 싶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사례 14번)

만약 학교가 가정의 문제까지 봐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포함시키는 프로그램

이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13번)

부모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 부모님 교육이 이루어지고 선생님과 연결이 잘 이루어진다면 적응을 잘 할 것 같아요. (사례 10번)

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이 서로 의논하고 그 다음 그러한 방법을 아이도 실천하고 집에서 도움도 주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사례 11번)

다문화 인식 교육: 당사자-또래-사회 전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아동까지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당사자에게는 자존감 및 정체성의 측면에서, 또래의 다른 아동들은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한 관계형성의 측면에서 이를 강조하였다. 7번 참가자의 언급한 다문화 특별반을 분리해서 수업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이 놀리는 것을 보고하였던 부분을 참고하여 보면, 다문화와 관련하여 분리와 통합의 과제에서 분리는 편견과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피해의식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피해의식이라기보다 자신을 좀 낮추어보지 않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축되지 않고 떳떳하게. 부모님이 다른 나라, 내가 피부색이 다르다 해서, 내가 남들과 다르다 해서 위축되지 않고 똑같다. 조금 다

를 뿐이다. 이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5학년 학생이다. 자존감하고, 자신감. 위축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다른 아이들도 보고 똑같이 대해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항상 위축되고 피해의식 느끼면서 다니면 다른 아이들도 보고 재는 저런 아이더라고 인식을 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9번)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만의 교육이 아니라 다른 애들에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의 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례 5번)

학교에 다문화 특별반이 있어서 다문화 특별반을 분리해서 수업하면 애들이 놀리기도 해요. (사례 7번)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정체성 및 다문화 인식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고 적응을 위한 정체성을 설명하며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학생들 또한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정체성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끼는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모든 응답자가 일반 학생들과 비교하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이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14명의 면접 대상자 중 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고민하거나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사니까. 친구들도 다 한국인이라서 나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례 14번)

스스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친구들은 저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문화가정인걸 모르는데, 만약 알게 되면 계속 친구들이 다문화 가정 맞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죠. 인기 많아지니까! (사례 9번)

다르다고 느낀 적 없어요. 다른 애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중간위치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집에서 TV를 보다가 다른 피를 물려받은, 반반 피를 나눠받은 아이를 봐서 나도 저렇구나 하고 느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것 때문에 고민된 적은 없어요. (사례 12번)

저는 친구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 부모님 말로는 반반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도 쥘 잘하니까, 공문서에는 한국으로 써야 해요. 그러니

한국사람이죠. (사례 10번)

다문화 인식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은 다문화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특별히 가치평가를 높게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폭넓고 건전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으로서 다국적인 생활경험을 통해서 다문화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문화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는 것이요. 음..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례 6번)

외국에서 온... 외국에서 한국사람이랑 같이 결혼해서 한국에 온 사람이요. 엄마가 다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엄마가 다문화는 놀리는 게 아니랬어요. (사례 4번)

엄마가 중국 분 인거 다들 알아요. 아무도 놀리지도 않아요. (사례 2번)

그냥 좋다고 생각해요. 중국어로 말이 통해요. 그래서 옆 반 아이랑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옆 반 애가 없었다면 우리학교에서 나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위대한 존재죠! (사례 11번)

논 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Giorgi(1985)의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조건으로 세 차원 즉,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사회적 차원을 도출하였다. 적응을 위한 개인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과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만한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심상민, 2011; 오옥선, 김성봉, 2012).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한국어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대인관계도 원만하기 어렵다. 정확한 발음구사도 중요한데, 이를 잘 하지 못하면 초등학생들의 말하기, 읽기 그리고 받아쓰기와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여 학업과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학업부진은 학교교육의 문제로 학업과 관련해 공부를 못하면 또래관계 형성에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우리사회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친구들의 도움이 개입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와 관련하여 적절한 개입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한국사회에서의 공존과 관련하여 긍정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존감도 관련이 있었다. 다가오는 사춘기 즉, 청소년기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다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와 관련된 자존감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다문화 관련 정체성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문은식, 2002; 민하영, 권기남, 2004; 박준성 등, 2015; 은선경, 2010;

최성보, 2011).

적응을 위한 관계적 차원에서는 학교교사와 또래관계가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교 및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김동현, 이규미, 2012; 이경남, 2008; 임지현, 2009; 제갈중기, 2007). 다문화와 관련하여 다문화 담당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담임교사인데, 담임교사의 역할이 학급 및 또래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현, 이규미, 2012; 최성호, 2011; 홍성훈, 김희수, 2005). 교사는 학교에서 학교 및 학급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리더이므로 다문화와 관련해서 교사의 인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장면에서 다문화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적절한 다문화 인식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따돌림과 같은 문제가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가 또래관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자 또래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게 하는지와 관련하여 교사의 역할을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래관계에서도 꾸준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여 또래관계에서 편견과 차별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학교에서 자신이 교사 그리고 또래와 긍정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통합교육을 언제 그리

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시사한다(박준성 등, 2013). 편견은 사람들이 연령이 낮을수록 편견에서 덜 하기 때문에 다문화통합교육을 이른 시기부터 적절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은 현재의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즉, 상급학교로의 진학 시 또래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청소년 시기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임을 알고 있음을 시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우리사회에서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문제 또한 언급하였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가정이든 다문화가정이든 편견과 차별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역 편견과 차별이 다문화를 뛰어넘어 우리사회에 만연된 사회문제임을 지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문화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미디어나 다른 간접적인 부분으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편견이 형성될 수 있음을 걱정하였다.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편견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다문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김태준, 2004; 박준성 등, 2015; 이석형, 2008). 우리사회에서의 다문화와 관련하여 범국가적이지 다각적인 캠페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와 관련하여 여러 과정의 경험을 통해 다문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언론매체 및 지역사회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 가정 그리고 다문화 인식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맞는 개별 생활지도 및 상담과 관련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심상민, 2011; 은선경, 2010; 제갈중기, 2007; 최성보, 2011).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들에게 적절한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신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어 사용과 함께 학교에서의 수업참여 및 과제 수행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문화적인 측면보다 앞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개개인의 역량과 자기개발에 해당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게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또 다른 차원으로 그들의 가정적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생활에 부모의 특히, 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는 우리사회에서 이주여성 어머니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설동훈 외 2005; 오옥선, 2014; 오옥선, 김성봉, 2012; 이진숙 2004). 즉, 부모의 적절한 수행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서 어머니로서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 다문화 인식에 대한 교육

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김태준, 2004). 특히,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당사자에게는 자존감 및 정체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또래의 다른 아동들은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관계형성의 측면에 중요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 스스로 우리사회에서 비주류나 방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끼리끼리’ 등과 같은 타집단 배척 의식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박은미, 박준성, 정태연, 2009; 양계민, 2015; 유민봉, 심형인, 2012; Jussim, Ashmore, & Wilder, 2001). 그렇기에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에 맞는 그리고 정체성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다문화 인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본 결과, 민족 정체성과 다문화 인식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한국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많은 초등학생들이 갖고 있었다. 민족 정체성과 관련하고 고민하거나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없었다. 이는 이미 우리사회에서 일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편견이 다문화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를 줄일 수 있다면 다문화와 관련하여 통합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도 다문화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인 적응을 위해서도 우리사회의 다문화 인식의 개선을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문화에 대해 특별히 가치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적응조건과 적응을 위한 향상 과제 그리고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적응을 위한 요인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14명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들로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학생들이었다. 지금까지 기존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는 학교생활에서의 편견과 차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기회 부족, 따돌림에 관한 정서적 문제와 부모 입장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미흡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였다(곽한영, 2010; 김아영, 김수인, 2011; 김은미, 양옥경, 이해영, 2009; 박준성, 안혜정, 정태연, 2013; 이석형, 2008).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반대로 적응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음에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와 관련하여 부적응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결방안 모색하는 것과 달리 잘 적응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연구함으로써 긍정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었음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추후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 중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응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학교생활적응의 조건을 다각적이고 폭넓게 알아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고등학교로 진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문화사회로 변

화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과 관련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사회의 이상적인 사회건설에 초석이 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희, 임성택 (2010).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1(1), 45-64.
- 고유미 (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한영 (2010). 다문화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5(1), 01-26.
- 국제신문, 2015. 3. 17. 기사
- 김근영, 박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연구개관과 향후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71-597.
- 김동현, 이규미 (2012). 초등학생의 사회적 행동특성과 또래지위 관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1), 1-24.
- 김성희, 정옥분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인간발달연구*, 18(3), 69-92.
- 김아영, 김수인 (2011). 여성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교육심리연구*, 25(4), 853-873.
- 김은미, 양옥경, 이해영 (2009). *다문화사회*, 한국. 서울: 나남출판사.
- 김혜은 (2012).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

- 울: 학지사.
- 김태준 (2004). 우리사회 시민의식 실태와 교육 함의: 비판의식 및 다양성 존중의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1(3), 333-354.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행동에 관련된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 권기남 (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이동학회지*, 25(2), 81-92.
- 박우람, 홍상황 (2014).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와의 중단적 인과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3), 455-477.
- 박은미, 박준성, 정태연 (2009). 새터민 대학생의 적응에 스트레스 및 중재변인이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연구*, 17(3), 285-293.
- 박준성, 안혜정, 정태연 (2013).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스트레스연구*, 21(1), 51-60.
- 박준성, 허성호, 전미연, 정태연 (2015). 남한에서 조선족 직장여성의 문화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1), 21-43.
- 박현선 (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우리사회복지학*, 53, 75-104.
- 설경옥, 정승원 (2013). 초등학생의 개인 및 부모환경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교소속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41-58.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심상민 (2011).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48, 115-140.
- 양계민 (2015).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165-193.
- 오세진 외 (2010). *인간행동과 심리학 제3판*. 서울: 학지사.
- 오옥선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및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45-65.
- 오옥선, 김성봉 (201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 들여다보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2), 235-260.
- 유민봉, 심형인 (2012).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457-485.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경남 (2008). 남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6(2), 1-12.
- 이석형 (2008). 다문화가정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30, 1-25.
- 이지연, 김문희, 한수진, 장진이 (2013). 성공적인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을 위한 필요요인에 대한 개념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1-18.
- 이진숙 (2004). 취학전 시기의 모-자녀관계, 교

- 사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333-357.
- 이태희 (2006). 집단따돌림과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접근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수진, 안진홍 (2012).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31-345.
- 임지현 (2009).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성희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13). 발달심리학 2판. 서울: 학지사.
- 정천석, 강기정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5-23.
- 제갈종기 (2007).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보 (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4(2), 105-130.
- 행정안전부.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홍성훈, 김희수 (2005).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학생의 애착안정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6(1), 33-53.
- Alloy, L. B., & Abramson, L. T. (1988) Depressive realism: Four theoretical approaches. In L. B. Alloy (ed.), *Cognitive processes in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erk, L. E. (2010).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5th. Boston: Pearson.
-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430.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 in child development*(pp. 15-45). Wiley, New York.
- Giorgi, A. (1985). (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Hall, G. (2010). *Multicultural psychology*, 2nd.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 Hofstede, G., & Hofstede, G. J. (200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2nd. New York: McGraw-Hill.
- Hurtado, S. (2005). The next generation of diversity and intergroup relations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 62, 595-610.
- Jussim, L., Ashmore, R. D., & Wilder, D. (2001).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conflict. In L. Jussim, Ashmore, R. D., & Wilder, D. (Eds), *Social Identity, Intergroup Conflict, and Conflict Re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freniere, P. J., & Sroufe, L.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 Psychology*. 21: 56-6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ntrock, J. (2011). *Life-span development, 3rd*. New York: McGraw-Hill.
- Sommers, S. (2006). On racial diversity and group decision making: Identifying multiple effects of racial composition on jury delib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597-612.
- Tropp, L., & Pettigrew, T. (2005). Relationships between intergroup contact and prejudice among minority and majority status groups. *Psychological Science, 16*, 951-957.

논문 투고일 : 2015. 10. 05

1 차 심사일 : 2015. 10. 20

게재 확정일 : 2015. 11. 27

A study of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elementary students

Junseong Park¹⁾

Youngjin Choi²⁾

Taeyun Jung³⁾

¹⁾Dept.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Nazarene University

²⁾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ung-Ang University

³⁾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istress and difficulties experienced by multi-cultural elementary students in our society and to identify replaceable resources related to their school adjustment. For this, semi-structured interview consisting of questions related to these issues was conducted to 14 multi-cultural elementary students of 3rd to 6th grade who were living in a metropolitan area.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Giorgi's(1985) method of phenomenological analysis, which led to three dimensions in relation to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individual, relationship, and societal dimensions. Also, for school adjustment, education was found to be needed at the level of individuals, family, and multi-cultural cognition. Lastly, as for multi-cultural elementary students to adjust well not only at the school but also in Korean society overall, they must have positive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 recognition. Finally, their school adjustment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se findings.

Key words : *Multi-culture, Elementary school children, School adjustment, and Method of phenomenological analysis.*